

고흥 시산도 상수도 최대 난관 해결

국내 최장 해저관로 4km 도킹
금산면 오천마을~시산도 해저 통과
주민 숙원 먹는 물 공급 '속도'
2027년까지 사업 완료 목표

■도양읍 시산도 상수도 공급사업 계획 평면도



시산도까지 해저를 통과하는 장거리 관로 설치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를 극복한 성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조기 공급 기반 마련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도양 시산도는 135세대 190명의 주민과 400여명의 김 양식 상시근로자가 거주하는 도서 지역으로, 오랜 기간 지하수 고갈 및 염분 유입 등으로 인한 수질 악화와 생활용수 부족 문제를 겪어왔다. 이에 고흥군은 시산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맑고 깨끗한 수도물' 공급을 위해 2024년 5월 공사를 착공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해저관로 도킹 성공을 계기로 2027년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도서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도킹 완료는 금산면 오천마을에서 도양읍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고흥군이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양읍 시산도 상수도 공급사업에서 약 4km의 국내 최장 해저관로 도킹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현재 추진 중인 시산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227억원을 투입해 해저 관로 4.23km, 육상 관로 5.37km, 통합 배수지 1개소 등을 정비하는 대규모 상수도 기반 사업이다. 특히 이번 도킹 구간은 국내에서 가장 긴 단일 해저 상수관로 구간으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많은 주목을

삼호의료재단, 여수시립요양병원 운영 연장

여수시, 민간위탁기관 재선정...올해 9월 2일부터 5년간

여수시가 여수시립요양병원의 민간위탁 기관으로 의료법인 삼호의료재단을 재선정하고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호의료재단은 2025년 9월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 5년간 여수시립요양병원을 운영하게 된다.

앞서 시는 삼호의료재단의 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오는 9월 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관한 적격자 심사를 거쳤으며, 전문성·사업수행능력·재정 능력·지역사회 공헌력 등을 종합 검토해 삼호의료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재선정했다.

한편, 둔덕동에 위치한 여수시립요양병원은 지난 2009년 개원해 29병실 136병상을 갖추고 있

며,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요양·진료와 의료취약 지역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삼호의료재단 이사장은 "지난 5년간의 운영 경험과 '환자는 가족처럼, 병원은 가정처럼, 지역은 이웃처럼'이라는 재단의 비전을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기명 시장은 "공립요양병원으로서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와 여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운영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전남 민간정원의 매력 느껴보세요

구례군, '쌍산재'·'천개의 향나무숲'·'반야원' 3곳서 7일까지 페스타

'2025 전라남도 민간정원 페스타'가 오는 7일까지 구례에서 열린다.

구례군이 주최한 이번 행사의 개최지는 '쌍산재'·'천개의 향나무숲'·'반야원' 민간정원 3곳으로, 모두 '2024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선정된 명소다.

이번 페스타는 각각의 정원이 가진 고유의 특성과 매력을 다채롭게 선보인다. '쌍산재'는 300년 고택의 멋과 전통 정원의 정취를, '천개의 향나무숲'은 1000그루의 향나무와 목사·매화의 은은한 향기를, '반야원'은 플라타너스와 소나무 숲, 정량한 연못이 어우러진 고요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 정원의 개성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 공연도 진행된다. 다과와 한복 등

전문문화 체험, 정원 소품 만들기, 시화 및 미술 전시회 등 관람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프리마켓과 지역 특산물 판매 부스도 운영된다. 한편 구례군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정원이 선정된 지역이자, 지역 내 모든 민간정원이 동시에 선정된 유일한 지역으로 기록됐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정원이며, 자연을 품은 천공 같은 곳이라 자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 정원문화의 품격을 더욱 높이고, 이와 연계한 문화·예술·치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잘 자라서 돌아오렴~' 보성군 특량만 수산자원 조성 방류행사가 마무리됐다. 약 5cm 크기의 감성돔 치어 18만 마가 방류돼 바다로 돌아갔다. <보성군 제공>

광양시, 논 잡초 먹는 왕우렁이 6t 농가 공급

제조 효과 98%·비용 50% 절감...친환경 농법 각광

광양시가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왕우렁이 농법에 사용될 왕우렁이(사진)이 6t을 6000만원을 들여 786개 농가에 공급한다.

왕우렁이 농법은 대표적인 친환경 제조 방식으로, 이양 후 5일 또는 썩레질 후 7일 이내에 왕우렁이를 논에 투입하면 제조제 사용에 준하는 약 98% 수준의 제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왕우렁이는 불속의 잡초를 잡아먹는 습성이 있어 제조제 저항성을 가진 피, 물달개비, 올방개 등 이른바 슈퍼 잡초까지 99% 제거하는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이로써 제조 작업에 드는 노동력을 줄이고, 제조제 사용보다 40~50%가량 비용이 절감하게 된다. 이



처럼 왕우렁이 농법은 실용성과 경제성을 갖춘 친환경 농업 실천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친환경 벼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다만 왕우렁이는 번식력이 강하고 확산 속도가 빨라, 수거가 의무 사항으로 지정될 만큼 방사 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매년 7월부터 8월 말까지를 일제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농가가 농경지와 용·배수로 주변에서 유실된 왕우렁이를 자발적으로 수거하도록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송명중 광양시 농업정책과장은 "왕우렁이는 논 속 자생 잡초의 어린싹을 섭식해 초기 제조 효과가 뛰어나며, 농약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농법의 핵심 수단"이라며 "다만 무분별한 방사는 생태계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공급 후 철저한 회수와 사후 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군, 섬진강 침실습지 '정화 활동'

5일 '세계 환경의 날' 플로깅 행사...조강하며 쓰레기 줍기

곡성군이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지난달 30일 섬진강 침실습지 일원에서 플로깅 행사를 실시했다.

'플로깅(Plogging)'은 스웨덴어 '줍다(plocka upp)'와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실천 운동이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실천하기 위해 열린 이번 플로깅 행사에는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곡성군, 영산강유역환경청, 푸른곡성21 실천협의회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곡성천, 오곡천 그리고 섬진강이 만나는 침실습지 일원을 중심으로 하천에 방치된 플라스틱과 비닐 등 다양한 쓰레기를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수거된 재활용 플라스틱의 수집, 분류 등 과정을 체험하고, 참여자들이 이를 SNS에 공유함으로써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행동 확산에도 힘을 보탤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침실습지 플로깅은 단순한 정화활동을 넘어, 환경문제에 대한 공감이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개인의 책임이 모여 변화된 시민의식은 결국 제도과 정책을 움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 환경의 날 공식 국제행사는 4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유엔환경계획(UNEP)과 우리 정부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997년 이후 28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으로, 장관포럼, 기술세미나, 글로벌 실천 캠페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곡성=박순구 기자 psk8210@kwangju.co.kr

그린 알로에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받은 광고를 입니다.